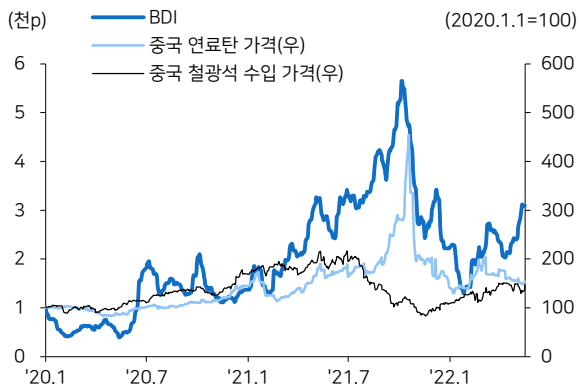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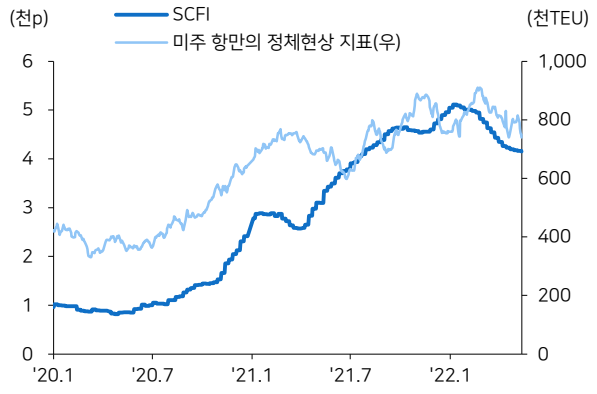


국내의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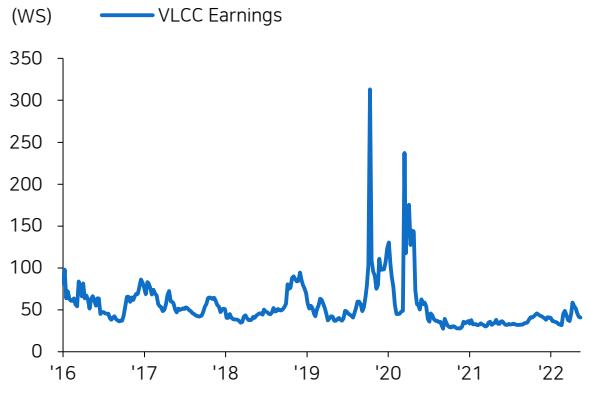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3,095p(+10.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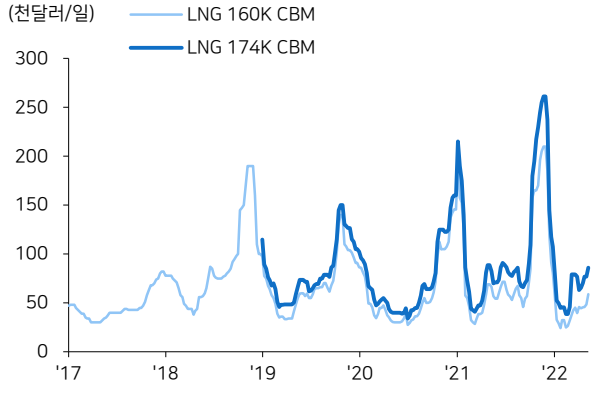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4,147.8(-15.9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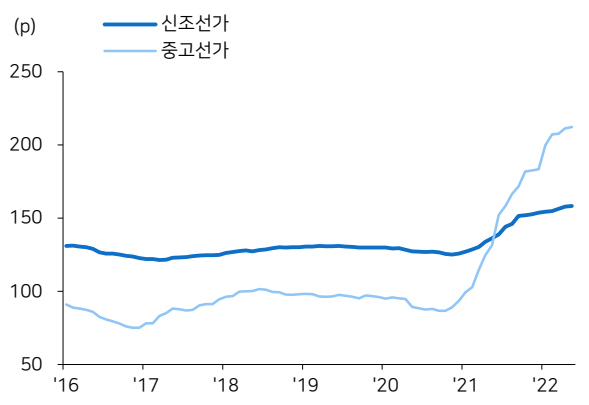
VLCC Spot Rate 40.7p(-0.8p WoW)



LNG Spot 운임 59.0p(+10.5p WoW) 86.0p(+9.3p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58.3p(+0.5p WoW) 211.4p(+0.3p WoW)



항공시장 지표 269.0p(+7.9p DoD) 98.4p(+3.6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의 주요 뉴스 및 코멘트

삼성중공업, 러시아 쇠빙 LNG선 프로젝트 예정대로 진행

삼성중공업이 러시아 국영조선소 즈베즈다와 공동으로 추진해온 5조원 규모의 LNG운반선 프로젝트를 위해 현지 조선소에서 마무리한다고 보도됨.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사태에도 건조 대금 지불 문제를 불식시키며 건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임. 해당 건조 물량은 2019년 수주한 물량 건임. 대금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음. (더 구루)

Petronas' chosen shipowners ink LNG newbuilding deals with yards

Petronas가 선정한 선사들이 LNG선을 발주했다고 보도됨. 현대중공업이 2척, 현대삼호중공업이 2척, 삼성중공업이 3척 건조하게됨. 한국조선해양은 척당 2.3억달러에 수주했으며 2025년 상반기 인도예정임. 삼성중공업은 척당 2.2억달러에 수주했으며 2026년 1월 인도예정임. (Tradewinds)

Bulker orderbook to 'remain anaemic' as sector faces myriad challenges

벌크선 수주가 최근 2년대비 조용할 것으로 보도됨. 팬데믹으로 인한 중국 봉쇄로 철광석 수요가 위축되며 Capesize 발주가 감소,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에 따른 석탄 및 곡물 공급망 혼란으로 소형 벌크선 발주도 감소함. 비싼 친환경 설비, 제한된 슬롯 등도 영향을 미침. 선박브로커들은 남은 2022년 동안 벌크선 발주는 미미하고, 2023년까지 상대적으로 균형 있는 공급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함. (Tradewinds)

June capesize FFAs surge 8.9% as optimism looks past stalled spot rally

6월물 Capesize 벌크선 선물운임이 화요일(17일) 8.9% 상승했다고 보도됨. 그러나 Capesize 5TC 스팟운임은 32,800달러/일에서 변동되지 않음. Braemar Atlantic은 Capesize 브라질·서호주-중국 철광석 교역노선이 타이트해지면서 FFA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함. 중국이 상하이 봉쇄를 해제하며 벌크선 시장 개선에 영향을 미침. 한편, 6월물 FFA 가격은 다음달 스팟운임이 현재 수준보다 21.5% 상승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보도됨. (Tradewinds)

산은·수은, 대한항공 CB 주식 전환 검토... 2,000만주 규모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보유한 3,000억원 규모의 대한항공 영구 전환사채(CB)물량이 대규모 주식으로 전환될 전망으로 보도됨. 주식 전환 시 대한항공은 연간 70억원에 달하는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음. 대한항공은 오는 6월 22일에 CB 조기 상환청구권을 가짐. 업계는 조기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6월 22일부터 '스텝업' 조항에 따라 금리가 올라 이자 비용이 두 배 이상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임. (조선Biz)

"미국, 유럽국가들에 러 석유에 대한 관세부과 제안"

G7 국가들이 유럽국가들과 러시아산 원유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도됨. 일부 동유럽 국가들의 반대로 러시아산 원유의 단계적 금수조치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관세부과를 통해 러시아산 원유를 시장에 계속 유통시키되 수출 규모를 제한하기 위함으로 설명함. (이데일리)